

# “구도심 모교 살리자”... 힘모은 학강초 선배들

### 총동문회 SNS 등 통해 활동 발전기금 3000만원 모금 나서 신발장·조형물 등 전달 예정



박정렬 총동문회장

7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학강초교의 총동문회가 쇠락하는 모교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구도심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학강초는 교세가 급격히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교사 증·개축 등 교사재배치 공사를 계기로 선배들의 모교돌기가 본격화됐다.

5일 광주학강초 총동문회에 따르면 팔순을 넘긴 1회 졸업생 등이 참여해 증손자뿐 후배들을 위한 학교발전기금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사(校舍)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학강초는 지난해 8월부터 예산 190억원을 들여 교사·급식실·강당 등 내년 5월 초 완공 목표로 교사재배

치(총면적 8849.38㎡, 지하 1층·지상 4층)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학교 측은 교내 신발장·조형물·장식장 구입비 등 제반 경비가 부족해 다소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목표 모금액은 3000만원. 이날 현재까지 모금액은 1000만원이다. 총동문회는 목표액이 달성되면 교내 신발장·조형물·장식장 등을 구입해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총동문회가 모교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후배들 때문.

어린 후배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선 탓이다.

‘모교 사랑, 후배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총동문회 역시 고민이 있다.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총동문회가 지난해 출범한 탓에 참여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총동문회는 SNS 밴드(광주학강초등 총동문회)와 기수별 모임 등을 통해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골프·트레킹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참여자 수를 넓혀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총동문회 측의 설명이다.

총동문회 측은 향후 회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교발전기금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모교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모교 측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뒤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정렬(25회) 광주학강초교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 사무실도 한 동문의 도움을 받아 모교 주변인 남광주시장 인근에 작은 사무실 한 칸을 마련했다”며 “후배들도 졸업한 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성인으로 자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강초는 지난 1943년 4월 1일 개교했다. 졸업생 수는 지난해 기준 3만 4000명이다. 이날 현재 학생 수 549명(남 276명·여 273명)이며, 교원 수는 45명(남 9명·여 36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존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노란색으로 교체

광주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등 기둥 등을 검은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된다.

광주시는 5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선 운전자들이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북구 오정초등학교 인근 등 13곳 27개의 교통신호등을 색을 노란색으로 올 연말까지 교체한다”고 밝혔다.

노란색으로 교통신호등이 바뀌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신호위반 예방과 차량 감속 등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오정초교 인근 교통신호 3개를 노란색으로 교체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교체 운영 효과를 분석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파란만장 광주청년에 보내는 응원

### 광주청년센터 11일 ‘파란만장전람회’

광주청년센터the숲(센터장 서일권)은 오는 11일 오후 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눔광장에서 ‘2017 파란만장전람회-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응원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자신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역 청년과 청년활동가, 청년을 응원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스존(Booth Zone), 치어업존(Cheer Up Zone), 릴렉스 앤 푸드존(Relax&Food Zone), 콘서트 앤 디제이존(Concert&DJ Zone)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부스존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및 청년기업들의 활동들이 소개되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치어업존은 광주지역 청년단체들의 활동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전과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청년웬벽(wall)으로 구성된다. 시민들이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릴렉스 앤 푸드존은 청년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청년푸드트럭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토닥토닥 상담소도 함께 운영한다.

콘서트 앤 디제이존에서는 남들과 다르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쇼, 음악을 통해 청년과 관람객이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꾸며졌다. 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람회를 통해 광주를 넘어 전국

의 청년이 행사장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githeforest.kr)나 광주청년센터the숲 062-232-1939.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전문가의 4차 산업혁명론은? ... ‘아리바다’서 무료로 배운다

〈광주시 지식공유 사이트〉

### 광주시, 초청 강연물 게시

광주시의 지식 공유 사이트인 ‘아리바다’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특강을 재능 기부했다.

광주시는 5일 “세계 수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미래 변화상에 대해 설명하는 특강을 광주시의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에 재능 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지식공유 플랫폼인 아리바다(arribada.gwangju.go.kr)에는 ‘4차 산업혁명 특별강좌’ 시리즈와 함께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발제가 올려졌다.

4차 산업혁명 특별 강연물은 광주시가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시리즈 초청 강좌의 일부다. ▲기술과 미래 ▲미래전략 ▲일자리 ▲민주주의 ▲인문학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2차례 주제 강연 중 8명의 명사가 재능기부를 했다.

세계 31개국 자치단체장, 인권운동가 등이 참여한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발제도 강연 형태로 녹화, 편집돼 아리바다에 게시됐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 스페인 마드리드 마우리시오 부시장 등 총 10명이 발표한 각국의 사례와 경험이 소개됐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구축된 ‘아리바다’는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강연을 재능기부 형태로 시



지난 3일 광주시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박창기(주블록체인OS 회장)가 강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민과 함께 나누는 지식공유플랫폼이다.

지난 2015년 3월 개통한 ‘아리바다’는 강연을 조회 수는 지난 8월 현재 15만건을 돌파했다. 아리바다는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강연을 재능 기부받아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

재능기부 대상도 생활의 기술과 지혜, 손재주까지 확대해 목공예, LED 플로리스트, 코바늘 등 시민들의 재능기부 동영상도 함께한다. 물품·재능·경험 등 공유 관련 정보를 나누고, 시민 열린 공간으로

진월 국제테니스장에 광주공유센터도 개관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마련한 특별강연에서 박창기(주블록체인OS 회장)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가치를 전망했다.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2027년 전세계 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의 보안과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개인정보, 문서 등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참여자들에게 공유되며 해킹과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나 현재 암호화폐 거래나 금융권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

## “무인텔”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